APLF, 서병륜 전임회장의 업적 높이 평가

- 싱가포르, APLF 차기회장국 추대 -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물류연맹(APLF)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싱가포르(SIMM : Singapore Institute of Materials Management)가 차기 회장국으로 선임되었다.

차기 회장국으로 선임된 싱가포르는 알버트 렁(Mr. Albert Leong Tin Lueng)물류경영학회장 체제하에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년간 APLF를 이끌게 된다.

이번 총회를 끝으로 4년 동안 아시아태평양물류연맹을 이끌어온 한국의 서병륜 한국물류협회 회장은 싱가포르에게 회장국 지위를 넘기면서, APLF가 인정하는 국제 물류관리사 제도를 만들어 아시아태평양 물류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장국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많은 협력을 요청하였다.

신임 알버트 렁 APLF 회장은 "우리는 회장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 진실되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임할것이며, 이번에 여러회원국중에 회장국으로 선출된어진 것은 인종, 언어, 문화, 종교 및 국적에 관계없이, 진실되게 업무에 임할것이며,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지원 및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APLF 총회에서는 APLF가 인정하는 「국제 물류관리사」 제도의 신설과, 2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외에 정기적인 미팅을 1년에 1회씩 개최되는 것을 안건이 제시되었다.

APLF가 인정하는 국제물류관리사 자격인증제도는 APLF 회원국이 서로 상호자격을 인정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우선, 물류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APLF 홈페이지에 On-line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인 물류표준화 및 국제물류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APLF 회원국이 노력하고, 각국의 정상회담과 같은 국제행사에 APLF에서 물류표준화 방안 등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APLF 회원국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2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적인 총회외에, 1년에 한번씩 따로 정기적인 미팅을 가져서 각 나라별 물류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자들의 연설에는 4년동안 임기를 무사를 마치고, APLF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한국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중국(CFLP; Chaina Federation of Logistics & Purchasing)의 Mr. He Liming 부회장은 "중국물류산업은 중국전체 서비스산업의 18.4%이고, 물류업의 작년 성장률은 24%로 APLF를 통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은 물류산업을 계속 발전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물류관련 학교와 교육기관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전제하며, 싱가포르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에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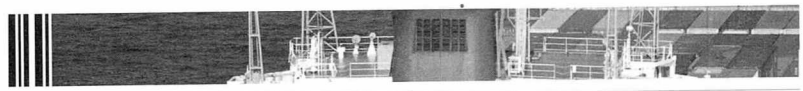
나아가, 중국은 APLF회원국의 선진물류기업을 보고 배우며 더욱더 발전 시킬 것이며, 중국의 물류관련 외국의 투자설비를 적극적으로 환영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JILS ; Japan Institute of Logistis System)의 Mr. Masato Tokuda 부회장은 "일본은 APLF의 회원국으로서 APLF를 통한 물류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물류 전부분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APLF의 회장국으로 지난 4년간 발전시켜온 한국측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신임 회장국인 싱가포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국(TNSC(National Shippers' Council)의 Mr. Suchart Chantaranakaracha 회장은 "태국도 각 물류관련 협의회를 통한 교육과 관련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APLF를 통한 각 회원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APLF의 참가국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상이 상당히 고무적이며, 지난 4년동안의 회장국의 역할을 다해준 한국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ALI;Asocition Logistics Indonesia)의 Mr. Zaldy Masita 상임임원은 "APLF의 회의에 일원이 된 것을 인도네시아를 대표해 감사드리며 지난 4년간 회장국으로의 활동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싱가폴과 인접하여 물류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배울점이 많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를



APLF의 협력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고, 정기총회 모임 외에도 꾸준히 협력방안을 찾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임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전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새로 싱가포르가 회장국이 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는 그간 동남아에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어 한국이 직접 비용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를 통하여 APLF의 홍보적인 효과와 아시아 물류의 주요 화두로 부각 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에 APLF를 효과적으로 어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회장국으로서 새로운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를 받아들여 점차 참여할 수 있는 나라들이 증가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주변국가로의 참가 활성화와 홍보를 진작시키고, APEC 정상회담과 같은 국제정상회의가 싱가포르에서 회의가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물류와 관련된 주요 의제도 이슈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물류

미·니·인·터·뷰

【APLF가 나아가야 할 먼 항해에서 길잡이가 될 터】

싱가포르(SIMM : Singapore Institute of Materials Management)가 차기 회장국으로 선임되었다. 차기 회장국의 대표인 알버트 렁(Mr. Albert Leong Tin Lueng)물류경영학회장을 만나보았다.

Q 먼저, APLF(아시아태평양물류연맹) 회장국으로 선임되신 것에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SIMM으로서 APLF 회장국을 받아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회장국인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회원국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APLF가 나아가야 할 먼 항해에 있어서 싱가포르는 회장국으로서 험난한 경주에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우리 싱가포르의 SIMM은 이러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드릴 것입니다.

또한 전임 회장인 서 회장님의 당부하신 APLF가 발전 하기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만족시킬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앞으로 회장국으로서 어떻게 운영을 해 가실 계획이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장국으로서 APLF와 관련된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은 회원국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며, 그리고 회원국의 응답에 따라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APLF의 모든 회원국 대표자는, 모든 협정에 의하여, 그들자신이 조직의 지도자 이며 담당자이다. 거기에는 명령에 따르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장은 일반적인 활동 계획과 정책적인 동의를 구하거나 일치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어떤 회장이든지 공유된 일을 강조하고 활동 계획의 적당한 해결책과 원인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단, 변화와 조정을 위한 방법은 허용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도 APLF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물류관리사 제도라든지, APLF 회원국을 위한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등이라 하겠습니다.

Q 지난 4년동안 한국이 회장국을 역임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APLF와 KLA 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 4년 동안이나 아무도 나서지 않은 회장국을 자원해서 맡고 있었고, 그로인해 많은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APLF가 이제까지 달성했었던 가장 큰 이슈를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 살펴보면, 항상 APLF의 회장국인 KLA가 지금까지 항상 중심에서 서서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전까지 없었던, APLF 홈페이지 제작과 정기적인 APLF회원국간의 모임 등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Q APLF 회장국으로서 한국의 물류산업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김치"와 "쌀밥"과 같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물류산업발전을 위해 조화와 번영을 육성시키며, 상호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면에서 APLF의 일원으로서, 생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국내적인 시각보다는 국제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상호적으로 배울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종합해서, 어떠한 것을 고쳐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적이고 협조적인 공동체 모임이나 또는 프로젝트를 해나가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싱가포르의 SIMM은 회장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 진실되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임할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회원국중에 회장국으로 선출된어진 만큼, 진실되게 업무에 임할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APLF가 더 효율적인 국제회의로 만드는데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거침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류